

연민의 은총을 구함

영신수련 제3주 간에서 이나시오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에 대한 사건들을 숙고하게 한다.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의 경험을 우리와 공유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머물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인생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고통을 짊어지는 일이다. 우리도 고통을 겪으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고통을 겪는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영적, 신체적, 감정적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나시오적 관점에서 볼 때 은총의 힘으로 이 고통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연민 compassion이다. 컴패션 compassion이라는 영어 단어는 “고통을 겪다”라는 뜻과 “함께”라는 뜻을 가진 두 개의 라틴어 단어에서 온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연민은 우리 자신의 고통을 껴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는 덕목이다. 연민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선물, 즉 은총이다.

이나시오는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얻게 되는 열매가 바로 이 연민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 이나시오가 영신수련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이다. 영신수련 제1주간은 우리 자신의 죄, 이 세상에 있는 심각한 결함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치유하시기 위해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룬다. 제2주간에서는 예수님의 공생활에 대해 묵상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일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배워 가면서 그분을 아주 가까이 만나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에는 이보다 더 깊은 뜻이 있다. 그것은 바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즉 그분의 고통과 죽음의 순간까지 그분과 함께 머무르는 것이다.

영신수련의 제3주간은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전하는 성경 대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곰곰이 숙고하면서 우리는 슬픔, 두려움, 감사로움, 경이로움과 같은 많은 감정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이나시오가 우리에게 특별히 구하라고 하는 은총은 연민의 은총이다. 이나시오는 예수님의 내적 경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 우리는 연민의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고통받아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마치 “내 고통이 어떠했는지, 내가 무엇을 보았고 느꼈는지를 너희에게 이야기하려 하니 내 말을 막지 말고 그저 내 옆에 머물러 있으며 들어 주겠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듯하다. 제3주간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돌아가신 예수님의 무덤 앞에 연민 어린 마음으로 서 있게 된다. 공허감, 비어 있음, 어두움이 거기에 있다. 연민이 우리를 그곳에 머무를 수 있게 해 준다. 비록 외롭더

라도 말이다.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관상하면서 우리는 삶에서 만나는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무엇보다도, 많은 경우 이 아픔과 고통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은 되돌릴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고통스러운 상황도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사람은 죽는다. 우리의 몸은 병고에 시달리며 쇠약해진다. 관계가 무너진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며, 그 죄의 결과로 이어진다. 이 모든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한다.

제3주간의 묵상은 또한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수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가르쳐 준다. 어떤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상황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때로는 너무 바쁘기에 고통받고 있는 친구와 함께 앉아 있을 수 없다며 실제로 도망가기도 한다. 또는 감정적으로 도망치기도 한다. 우리의 마음을 꼭 달아 버리고 감정적 거리를 두는 것이다.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에 대해서도 이런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이다. 복음에서는 너무도 아플 정도로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고통과 우리 사이에 벽을 쌓아 놓을 수도 있다. 이냐시오는 우리가 예수님의 수난 이야기를 아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직접적으로 체험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할 수 있다면, 우리 삶 안에서 만나는 다른

이들의 고통에도 함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침내 우리는 이냐시오가 말하는 연민이 본질적으로는 사랑으로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도 거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연민의 또 다른 측면은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영신수련 제3주간 다음에 이어지는 제4주간에서는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 사화를 관상하게 된다.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의 기쁨으로 이어진다. 성금요일, 예수님의 무덤 앞에 선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그 무덤은 비어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 계시는 것이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현존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아픔을 없애 주시기 때문에 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해야 한다고 배웠던 것처럼, 그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것이다.

연민은 또한 하느님의 용서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한다. 이냐시오는 영신수련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고통을 관상하면서 “탄식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은총을 구하라고 가르친다. 이러한 종류의 연민은 사랑하지 않았던 우리의 태도에 대해 민감하게 한다. 우리는 더욱 민감하게 하느님의 사랑을 감지하

고, 용서받을 준비를 더 갖추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 책의 앞부분에서 바리새이 시몬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던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님의 무한하신 용서를 드러내셨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그 이야기를 연민의 관점으로 다시 성찰해 보자. “죄 많은 여자”가 식탁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 다가가와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신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발랐다.”

그 식탁에 있던 시몬과 다른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불편해할 때에 예수님은 그 순간을 가르침의 기회로 삼으신다. 예수님은 각각 오백 데나리온과 오십 데나리온을 빚진 채무자들을 용서해 준 채권자의 이야기를 하시며, “그들 가운데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신다. 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이 비유를 죄 많은 여자에게 적용하신다. 죄 많은 여자는 자신이 큰 죄를 지었음을 알았기에 큰 사랑을 예수님께 드러내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드러내었다. 행동으로 말한 것이다. 예수님은 그 여자가 큰 사랑을 드러내었기에 그녀의 죄를 용서하신다.(루카 7,37-47)

죄 많은 여자가 그러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안전함을 느낀다. 연민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의 연민을

이해하게 된다. 그분이 그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위로를 준다. 특히 고통이 너무도 심해서 삶이 막막하고 외로울 때 더욱 그러하다. 위로를 주시는 그분의 현존은 결국 예수님께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게 한다.